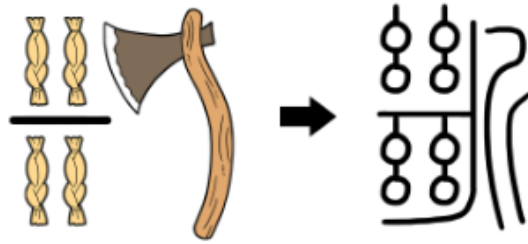


4(2)
-
31

회의문자①



斷

끊을 단:

斷자는 '끊다'나 '결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斷자는 𠂔(이를 계)자와 斤(도끼 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실타래가 서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잇다'나 '이어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실타래가 이어져 있는 모습을 그린 𠂔자에 斤자를 결합한 斷자는 실타래를 도끼로 자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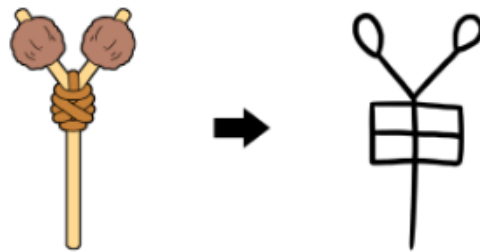
소전

斷

해서

4(2)
-
32

상형문자①



單

홀 단

單자는 '홀로'나 '오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單자는 원시 무기의 일종을 그린 것이다. Y자 형태로 그려졌기 때문에 마치 새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그렸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무기인 투석(돌팔매)을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보다도 왜 무기의 일종을 그린 글자가 '홀로'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인지가 더 의문이다. 일설에는 이것이 혼자서도 사냥할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래서 單자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홀로'나 '오직'이라는 뜻을 갖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彈(탄알 탄)자나 戰(싸울 전)자처럼 여전히 무기라는 뜻을 전달한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單

소전

單

해서

4(2)
-
33

형성문자①



檀

박달나무
단

檀자는 '박달나무'를 뜻하는 글자이다. 檀자는 木(나무 목)자와 單(믿음 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單자는 제기 그릇이나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박달나무는 자작나뭇과의 일종으로 온대 지방에서는 가장 단단한 나무에 속한다. 단군(檀君)의 즉위년을 기원으로 한 단기(檀紀)에도 檀자가 쓰이는 것을 보면 박달나무는 우리 역사와도 인연이 깊은 나무이다.

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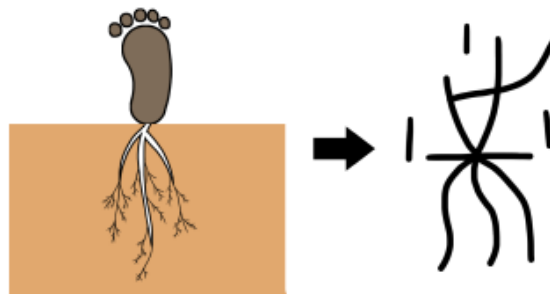
소전

檀

해서

4(2)
-
34

회의문자①



端

끝 단

端자는 '바르다'나 '단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端자는 立(설 립)자와 耑(시초 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端자의 갑골문을 보면 立자가 아닌 止(발 지)자와 耑자가 결합한 耑 모습이었다. 耑자는 잡초의 뿌리와 이파리를 표현한 것으로 '시초'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 발을 뜻하는 止자가 더해진 端자는 이파리가 앞으로 곧게 뻗어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端자는 '바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耑자의 의미가 강하게 남아있어서인지 '시초'나 '끝'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耑

갑골문

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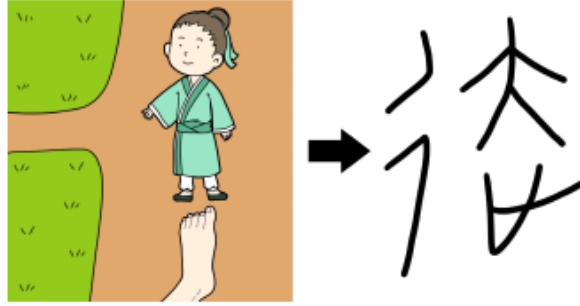
소전

端

해서

4(2)
-
35

회의문자①



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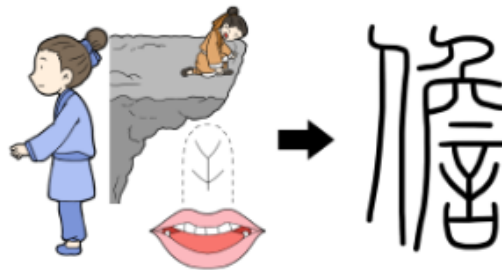
통달할
달

達자는 '통달하다'나 '통하다', '막힘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達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牽(어린 양 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牽자는 大(큰 대)자와 羊(양 양)자가 결합한 것으로 양을 모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達자의 갑골문을 보면 辵자와 大(큰 대)자만이 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니 지나기가 매우 수월하다. 그래서 達자의 본래 의미는 '막힘이 없다'였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羊(양 양)자가 더해지면서, 양을 물고 다닐 정도로 '막힘이 없다'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이 합쳐지면서 지금의 達자가 만들어졌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36

회의문자①



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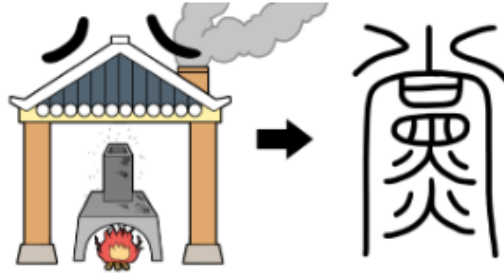
멜 담

擔자는 '메다'나 '짐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擔자는 手(손 수)자와 詹(이를 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詹자는 절벽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해 말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擔자는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人(사람 인)자가 들어간 儋(멜 담)자가 쓰였었다. 그러니 소전에 나온 대로라면 儋자는 등에 짐을 짊어 메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과도 같다. 擔자는 이렇게 짐을 짊어 메고 있는 모습에서 '메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지만, 해서에서는 擔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擔자는 詹자를 단순히 무거운 짐으로 해석해야 풀이되는 글자이다.

소전	해서

4(2)
-
37

회의문자 ①



黨

무리 당

黨자는 '무리'나 '일가', '친하게 지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黨자는 尙(오히려 상)자와 黑(검을 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尙자는 집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아궁이를 그린 黑자가 결합한 黨자는 집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연기가 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黨자의 본래 의미는 '선명하지 않다'였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주(周)나라 때 500가구를 '一黨'으로 묶는 호적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무리'나 '일가'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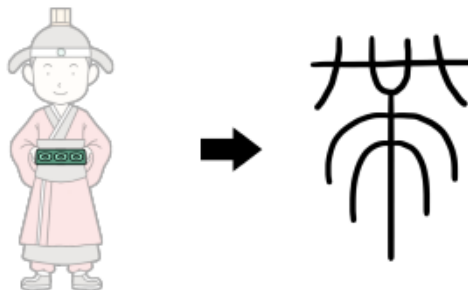
소전

黨

해서

4(2)
-
38

회의문자 ①



帶

띠 대(·)

帶자는 '띠를 두르다'나 '데리고 있다', '장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帶자는 허리띠를 차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帶자에 쓰인 巾자는 몸에 두른 옷을 뜻하고 상단은 장식이 들어간 허리띠를 표현한 것이다. 장식이 들어간 허리띠는 옷고름을 정리하는 역할도 했지만,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래서 帶자는 '띠를 두르다'라는 뜻 외에도 '장식하다'나 '꾸미다'라는 뜻도 함께 갖게 되었다. 또 허리띠는 항상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리고 있다'나 '붙어 다니다'와 같은 뜻도 파생되었다.

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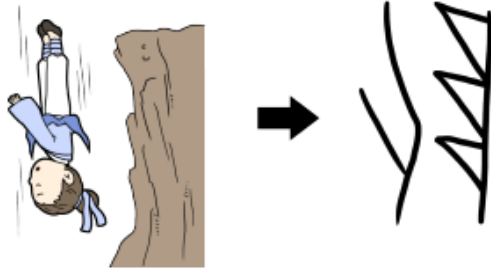
소전

帶

해서

4(2)
-
39

회의문자 ①



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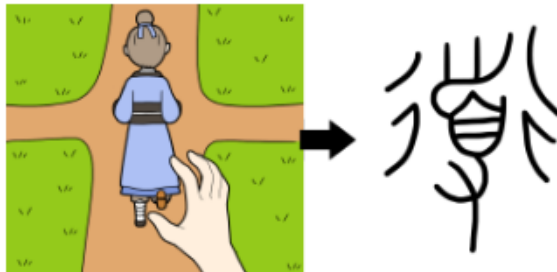
무리 대

隊자는 '무리'나 '떼', '군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隊자는 阜(부: 언덕 부)자와 象(멧돼지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象자는 멧돼지가 풀숲을 헤치고 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멧돼지'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隊자의 갑골문을 보면 언덕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隊자의 본래의 의미는 '떨어지다'였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人자가 象자로 바뀌면서 군대의 대오(隊伍)와 관련된 뜻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土(흙 토)자를 더한 墜(떨어질 추)자가 '떨어지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40

회의문자 ①



導

인도할
도:

導자는 '이끌다'나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導자는 道(길 도)자와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道자는 길을 그린 辵(갈 착)자와 首(머리 수)자를 결합한 것으로 '길'이나 '도리'라는 뜻이 있다. 본래 '인도하다'라는 뜻은 導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道자가 '도리'나 '이치'를 뜻하게 되면서 여기에 寸자를 더한 導자가 '사람을 인도한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寸자가 사람의 손을 그린 것이니 지금의 導자는 마치 손으로 방향을 가리켜 목적지를 안내하는 듯한 모습이 되었다.

금문	소전	해서